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막스 베버 지음 |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막스 베버 지음 |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막스 베버 Max Weber, 1864~1920

독일 에르푸르트 출생.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 활동한 사회과학자로서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분석력으로 법학·정치학·경제학·사회학·종교학·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예리한 현실감각으로 당시 뒤쳐져 있던 독일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근대화에 힘썼다. 그의 업적은 사회과학의 모든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가치자유(물가치성)의 정신과 이념형 조작(操作)이 뒷받침된 사회과학 방법론의 확립, 종교적 이념과 예토스(사회적인 습관)의 역사 형성에 입각한 유물사관 비판, 근대 서구세계를 일관해서 흐르는 합리화와 관료제적 지배의 현대적 의의의 지적 등이다. 베버의 학설은 사회과학에 광범한 영향을 끼쳤으며, 가치자유, 이념형적 파악, 이해적(理解的) 방법에 바탕을 둔 학문론은 독일역사학파뿐만 아니라 마르크스주의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론이나 관료제론, 종교사회학적 연구는 마르크스 이론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의의를 잃지 않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막스 베버 지음 | 박성수 옮김

문예출판사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
Max Weber

저자 서문

보편사의 어떤 문제를 연구하든, 근대 유럽 문명의 산물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자문하게 만든다. 즉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듯이) ‘보편적’ 의의와 가치를 지닌 발전선상에 놓여 있는 듯한 문화적 현상이 서구 문명에서, 그리고 오직 서구 문명에서만 나타난 사실은 어떤 일련의 환경들에 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직 서구에만 우리가 오늘날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발전 단계에 오른 과학이 존재한다. 경험적 지식, 우주와 삶의 문제에 대한 반성, 가장 심오한 종류의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지혜 등은 서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물론 이슬람과 다른 인도의 몇몇 종파에서는 단지 단편적 신학만이 존재했기 때문에 앞에 말한 종류의 지혜가 체계적 신학의 만개한 발전에 이른 것은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서 기독교에만 국한되지만. 간단히 말해서 매우 세련된 지식과 관찰은 다른 곳, 특히 인도, 중국, 바빌론, 이집트 등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바빌론나 다른 곳에서는 천문학이—그래서 그 발전을 더욱 놀라운 것으로 여기게 되는데—최초로 그리스인들로부터 수용된 수학적 기초를 결여하고 있었다. 또 인도의 기하학은 아무런 합리적 증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증명도 역학과 물리학의 창시자인 그리스적 지성이 낳은 또 다른 산물이다. 인도의 자연과학도 비록 관찰은 잘 발달했지만 실험 방법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 방법은 고대에 시작되었다는 점 말고는 본질적으로 근대의 실험실과 마찬가지로 르네상스의 산물이었다. 그러므로 특히 인도에서 약학은 경험적 기술에서는 매우 발달했을지라도 생물학적 토대, 특히 생화학적 토대를 결하고 있었다. 합리적 화학은 서구를 제외한 어떤 문화 영역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중국의 고도로 발전된 역사 연구도 투키디데스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다. 인도에 마키아벨리의 선구자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인도의 정치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것에 비견할 만한 체계적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했으며 실제로 합리적 개념의 소유라는 점에서 그러했다. 인도에서의 모든 선구적 업적들(미맘사 학파)도, 특히 근동에서의 광범한 성문화 작업도, 또 인도와 다른 곳의 법률서들도 엄격한 체계적 형식의 사고를 갖지 못했다. 이러한 사고는 로마법의,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서구 법률의 합리적 법학의 본질적인 면이다. 교회법과 같은 구조는 단지 서구에만 알려져 있다.

예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른 국민들의 음악적 귀는 아마도 우리 자신의 경우보다 더 감각적으로 발달되었을지도 모른다. 분명 덜 발달하지는 않았다. 다양한 종류의 다성 음악이 지구상에 널리 퍼져 있었다. 여러 악기들의 협연과 여러 음부의 합창은 다른 곳에도 존재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합리적 음계가 다 알려져 있었고 계산되었다. 그러나 합리적인 화성음악, 대위법과 화음, 3도 음정을 지닌 세 화음에 근거한 음의 조작, 공간에 따라 해석되지 않고 르네상스 이래로 화음에 따라 해석된 반음계와 미세음계, 현악 사중주를 핵심으로 하는 오케스트라, 관악 합주의 조직, 베이스 반주, 근대적 음악작품의 작곡과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그것의 생존 자체를 가능하게 한 기보 체계, 소나타, 심포니, 오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수단이 되는 우리의 기본적인 악기들인 오르간, 피아노, 바이올린 등등의 이 모든 것은 단지 서양에만 존재하는 것이다. 설령 표제 음악, 음률시, 음조의 반음계 등이 표현 수단으로서, 다양한 음악적 전통 안에도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건축의 경우 뾰족한 아치는 고대에,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장식의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다. 아마도 뾰족한 아치와 십자 아치의 둥근 천장은 동양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압력을 배분시키는 수단으로서의 고딕식 둥근 천장의 사용과 무엇보다도 거대한 기념 건물의 구성 원칙으로

서, 그리고 중세에 이루어진 것처럼 조각과 회화에까지 확장된 스타일의 토대로서의 모든 형태의 지붕 공간의 합리적 사용 등은 다른 곳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 건축의 기술적 토대는 동양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나 동양은 르네상스가 우리에게 제공했던 모든 예술의—회화의 경우 선과 공간적 원근법의 합리적 사용에 의한—고전적 합리화 유형과 돔 문제의 해결 등을 결여하고 있었다. 중국에도 인쇄는 있었다. 그러나 ‘단지’ 인쇄를 위해서, 그리고 오직 인쇄를 통해서만 디자인된 인쇄문헌, 특히 신문과 정기간행물은 단지 서양에서만 출현했다. 모든 가능한 유형의 고등교육기관, 심지어 우리의 대학 혹은 적어도 아카데미와 피상적으로만 유사한 유형의 기관이 존재했다(중국과 이슬람). 그러나 훈련되고 전문화된 인원을 갖추고 이루어지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며 전문화된 과학의 추구는 우리 문화에서 현재 차지하고 있는 지배적 위치에 접근하는 의미로는 단지 서구에만 존재했다. 무엇보다도 근대국가와 서구의 경제생활 모두에 기둥의 역할을 하는 훈련된 관리에 대해서는 진정으로 그러하다. 훈련된 관리란 지금까지 단지 암시되었을 뿐, 사회질서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중요성에는 접근한 적도 없는 유형을 구성한다. 물론 관리, 그것도 전문화된 관리란 매우 다양한 사회에서 매우 오래된 구성 인자이다. 그러나 어떤 나라도 어떤 시대도 근대 서양과 동일한 의미에서 특별히 훈련된 관리들의 ‘조직’에 그 전적인 존재, 그리고 그 삶의 정치적·기술적·경제적 조건을 절대적이고도 완전하게 의존해본 적은 없다. 사회적 일상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기술적으로, 상업적으로, 그리고 특히 법적으로 훈련된 정부 관리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봉건계급 내에서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집단들의 조직은 일상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서구적 의미에서 ‘법에 따라 통치한다’는 봉건국가마저도 서양 문화에만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의회에 책임을 지는 각료로서의 정당 지도자, 그리고 선동가들에 의한 정부와 함께 정기적으로 선출되는 대표들의 의회들 경우에는 더욱더 서양에만 특유한 것이다. 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권력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조직이란 의미에서의 정당이 세계 전역에 걸쳐 존재했다 해도 그러하다. 사실상 합리적 성문헌법과 합리적으로

정비된 법률, 합리적 규칙이나 법에 따른 행정 등을 갖춘 정치적 결사체란 의미에서의, 훈련된 관리들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국가 자체가 이러한 특징들의 결합의 형태로는 그 모든 유사물에도 불구하고 단지 서양에만 알려져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근대적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획득에의 충동, 이윤과 화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화폐에 대한 추구 그 자체는 자본주의와 관계가 없다. 이 충동은 웨이터, 의사, 마부, 예술가, 창녀, 부패관리, 군인, 귀족, 십자군, 도박꾼, 거지 등에게도 존재하고 있으며 존재해왔다. 아마도 이 충동은 그 객관적 가능성이 있는 혹은 있었던 곳이라면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고 모든 시대에 모든 종류와 조건의 인간들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주의에 대한 이러한 소박한 생각이 단적으로 포기되어야 함은 문화사의 초기에 가르쳐져야 한다. 획득을 위한 무제한의 탐욕은 결코 자본주의와 동일한 것이 아니며 자본주의 정신과는 더욱더 동일한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아마도’ 이러한 비합리적 충동의 절제, 아니면 적어도 그러한 충동의 합리적 완화와 동일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경영에 의한 이윤 추구, 그리고 영원히 ‘재생되는’ 이윤의 추구하고 동일한 것이다. 이는 반드시 그러해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전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사회질서 안에서 이윤 획득을 위한 자신의 기회를 이용하지 않는 개별적 자본주의 기업은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보다 더 주의 깊게 우리의 용어들을 정의하자. 우리는 자본주의적 경제행위를 교환 기회의 사용에 의한, 즉 (형식적으로) 평화적 이윤 기회의 사용에 의한 이윤 기대에 의존하는 행위라고 정의할 것이다. 강제에 의한 획득(형식적으로 그리고 실제로)도 나름의 독특한 법률을 따르는데, 이러한 획득을 종국적으로 교환에서 이윤을 지향하는 행위와 같은 범주 안에 두는 일은—아무도 금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적절하지 않다. 자본주의적 획득이 합리적으로 추구되는 경우에 그에 조응하는 행위는 자본

에 의한 계산에 적응된다. 이것은 그 행위가 재화와 인간의 용역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획득 수단으로서 체계적으로 사용하도록 적응된다는 의미다. 그 방식이란 한 기업의 회기 종결 때 화폐 자산으로 (혹은 연속적 경영이라면 주기적으로 평가된 자산의 화폐가치로) 본 기업의 수지균형이 자본, 즉 획득을 위해 교환에 사용된 물질적 생산수단의 평가가치를 상회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것이 운송 상인에게 ‘현물로’ 위탁된 양의 재화를 포함하건—이는 아마도 거래에 의하여 얻어진 다른 ‘현물’ 재화로 구성될 것이다—아니면 건물, 기계, 현금, 원료,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제조된 재화 등—이것들은 부채로 상계된다—으로 이루어진 자산인 제조업체를 포함하건 아무런 차이도 없다. 중요한 사실은 항상 자본의 추정이 근대의 부기방식으로든, 아니면 어떤 원시적이고 조야한 다른 방식으로든 간에 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수지균형의 용어로 행해진다. 경영의 시초에 최초의 수지, 즉 모든 개별적 결정 이전에 자신의 개연적 예상 이윤에 대한 평가 추정이 있고 마지막에는 얼마나 많은 이윤이 얻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최종 수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코멘다 거래의 최초 수지는 투자된 자산에 대한 화폐가치를 결정할 것이다(그 자산들이 아직 화폐 형태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한). 그리고 마지막 수지는 최종적인 이윤과 손실의 분배를 근거 짓는 평가를 하게 된다. 거래가 합리적인 한 추정은 거래 상대방의 모든 행위를 근거 짓는다. 실제로 정확한 추정이나 평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든지 그 과정이 순수한 추측에 불과하다거나 단순히 전래적이고 관례적이라든지 하는 일은, 오늘날에도 여건이 엄격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적 기업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자본주의적 취득의 합리성의 ‘정도’에만 영향을 미치는 점들이다.

이러한 방식의 사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원시적인 형태로나마 경제행위를 화폐소득과 화폐 지출의 비교에 적응시키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의 자본주의와 자본주의적 경영은 자본주의적 계산의 상당한 합리화를 갖춘 식으로 경제적 문헌들이 우리의 판단을 허용하는 한에 있어서 이미 지구상의 모든 문명화된 나라들

에 존재했다. 근대뿐 아니라 중국, 인도, 바빌론, 이집트, 고대 지중해, 중세에도 존재했다. 단지 고립적 시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사업의 지속적 갱신, 그리고 지속적 작동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제적 기업들이 있었다. 그러나 특히 무역은 오랫동안 우리 자신들의 경우처럼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고 본질적으로 일련의 개별적 사업들이었을 뿐이다. 단지 점차적으로 거대상인들의 행위들도 (지부 조직화 등과 함께) 내적인 응집력을 얻어간 것일 뿐이다. 어떤 경우든 자본주의적 경영과 자본주의적 기업가, 즉 일시적 기업가가 아니라 상시적 기업가는 모두 매우 오래된 것이며 또 매우 널리 퍼져 있었다.

그러나 이제 서양은 자본주의를 양적인 정도로, 그리고 (이 양적 발전과 더불어) 이전에는 다른 곳에서 존재한 적이 없는 유형과 형태 및 방향으로 발전시켰다. 전 세계에 걸쳐 도매상인, 소매상인 혹은 지역상인, 해외무역에 종사하는 상인들이 있어왔다. 모든 종류의 대부가 이루어졌으며 적어도 16세기에는 우리의 은행에 비견할 만한 매우 다양한 기능을 가진 은행들이 존재했다. 해운대부, 코멘다, 그리고 무역 및 합자회사와 유사한 결사체들 등이 널리 퍼져 있었고 그것도 상시적인 기업으로 그러했다. 공공단체의 화폐 재정이 존재하던 때라면 언제나 바빌론, 헬라스, 인도, 중국, 로마 등지에서처럼 화폐대부자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전쟁과 해적질,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계약과 건축에 재정을 댔다. 해외 정책에서 그들은 식민지 기업가로서, 노예를 갖거나 직간접적으로 강제된 노동을 사용하는 농장주로서 기능했으며 영토, 기업, 세금 등을 도급했다. 그들은 선거에서 정당 지도자들에게 돈을 댔으며 내란의 경우에는 용병을 위한 재정을 담당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모든 종류의 금전적 소득을 위한 기회에 투기를 행했다. 이런 종류의 기업가, 즉 자본주의적 모험상인들은 어느 곳에도 존재했다. 무역과 신용 및 은행 거래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행위는 비합리적이고 투기적 성격이 강했으며, 혹은 강제에 의한 획득 주로 전쟁에서 직접적 방식으로건 신민들에 대한 지속적 착취에 의한 재정적 노획에 의해서건 어쨌건 노획에 의한 획득을 지향하였다.

프로모터들, 대규모 투기자들, 양여물 획득을 위해 애쓰는 자들의 자본주의, 그리고 평화적인 시기의 많은 근대적 금융자본주의,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별히 전쟁을 이용하는 데 관심을 가진 자본주의는 근대적인 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징표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국제무역 일부는, 단지 일부지만, 언제나처럼 오늘날에도 그러한 것들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대에 서양에서는 이에 더하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나타난 적이 없던 매우 다른 형태의 자본주의가 발전했다. 즉 (형식적으로)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그것이다. 그와 같은 것을 상기시키는 정도의 것은 다른 곳에서도 발견된다. 부자유스러운 노동의 조직화조차도 플랜테이션의 경우에는 상당한 정도의 합리화에 도달했으며 제한된 정도로는 고대의 ‘에르가스테리아’에서도 발견되었다. 장원에서, 그리고 장원 부속 작업장이나 농노 노동을 갖춘 영지의 가내 산업에서 합리화가 어느 정도 될 발달했던 것 같다. 자유노동을 갖춘 실질적인 가내 산업조차도 서양 이외에서는 매우 고립된 경우에만 존재했던 것으로 분명히 입증되었다. 일용 노동자의 빈번한 사용은 매우 드문 경우에—특히 국가 독점의 경우, 그러나 이것은 근대적 사업 조직과 상당히 다른 것이다—제조업 조직을 결과시켰지만 결코 서양 중세의 것과 같은 수공업상의 합리적 도제 조직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윤을 위한 정치적 기회나 합리적이지 못한 투기적 기회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정기적 시장에 맞추어진 합리적 산업 조직은, 그렇지만 서구 자본주의에만 독특한 것이다. 자본주의적 경영의 근대적인 합리적 조직은 그 발전에 있어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즉 근대적 경제생활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가사와 사업의 분리, 그리고 이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합리적 부기가 그것이다. 거주 장소와 노동 장소의 공간적 분리는 동양의 시장이나 다른 문화에서의 에르가스테리아의 경우처럼 다른 곳에도 존재한다. 나뭇의 회계를 지닌 자본주의적 결사체의 발달은 극동, 근동, 그리고 고대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근대적 독립성에

비하자면 그러한 것들은 단지 조그마한 시작에 불과하다. 이에 대한 이유는 특히 이러한 독립을 위해 불가결한 선결 요건, 즉 서구의 합리적인 기업부기 및 개인적 소유와 기업의 법적인 분리가 전적으로 결여되었거나 단지 발달의 초기 상태에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곳에서의 경향은 탐욕적인 기업이 왕실의 가사oikos 혹은 장원의 '가사'의 일부로서 성장하는 것이었다. 이는 로트베르투스가 지적했듯이 그 모든 피상적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심지어는 반대되는 발달이었다.

그러나 서구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든 특이성은 그 중요성을 결국에는 그것들이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와 결부되었다는 데서 얻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업화라고 불리는 것, 즉 유통증권의 발달과 투기의 합리화 및 교환 등도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 왜냐하면 노동의 합리적인 자본주의적 조직화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와 연관된 근대 서양의 특수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지금과 동일한 중요성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정밀한 계산은 단지 자유로운 노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세계에서 근대 서양을 제외하고는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존재하지 않았듯이 혹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합리적 사회주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도시경제, 도시의 식료 공급 정책, 중상주의와 군주의 복지 정책, 배급, 경제생활의 통제, 보호주의, '자유방임' 이론(중국에서처럼) 등이 존재했다.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 실험도 알려져 있다. 이를테면 가족적 혹은 종교적·군사적 공산주의, 국가사회주의(이집트의), 독점적 카르텔, 소비자 조직 등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록 모든 곳에 도시 시장 특권, 회사, 길드,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도시와 농촌 간의 법적인 차이 등이 존재했다 해도 시민이라는 개념은 서양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근대 서양 이외에는 부르주아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계급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도 존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규칙적인 훈련 아래 있는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채권자 계급

과 채무자 계급, 영주와 토지 없는 농노나 소작인, 그리고 상업 이익과 소비자 혹은 영주 간의 계급투쟁은 다양하게 결합되어 어느 곳이나 존재했다. 그러나 대부자와 그의 노동자 간의 서구적인 중세적 투쟁조차도 다른 곳에서는 단지 초기에만 존재했을 뿐이다. 대규모 산업의 기업가와 자유임노동자 간의 근대적 갈등은 전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와 같은 문제는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보편적 문화사에서 우리에게 핵심적 문제는 결국 순전히 경제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상이한 문화에서 단지 형태적으로만—모험가적 유형, 혹은 이윤의 원천으로서 무역·전쟁·정치·행정상의 자본주의—다른 자본주의적 활동 자체의 발전이 아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노동의 합리적 조직화를 갖춘 착실한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기원이 문제가 된다. 문화사의 용어로 말하자면 문제는 서구 부르주아 계급과 그 독특성의 기원에 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분명 노동의 자본주의적 조직화의 기원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지만 바로 그 문제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계급으로서의 부르주아는 특별히 근대적인 형태의 자본주의의 발전 이전에도 비록 서반구에서만 그랬던 것이지만 어쨌든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제 자본주의의 특별히 근대 서구적인 형태는 일견하기에 기술적 가능성의 발달에 강한 영향을 받아온 것 같다. 그 자본주의의 합리성은 오늘날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요인들의 계산 가능성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그 자본주의가 근대 과학의 독특함, 특히 수학에 근거한 자연과학과 정밀하고 합리적인 실험 등에 의존한다는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과학, 그리고 그 과학에 의존해 있는 기술의 발달은 다시 실제상으로 적용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로부터 중요한 자극을 받는다. 물론 서구 과학의 기원이 그러한 이해관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십진법을 갖춘 계산, 그리고 대수학은 십진법이 고안된 인도에서 이미 수행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서구의 발전하는 자본주의에 의해서만 이용되었다. 반면 인도에서는 그러한 계산이 어떤 근대적 대수학이나 부기

로도 귀결되지 못했다. 수학이나 역학의 기원이 자본주의적 이해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중의 생활 조건에 그렇게도 중요한 과학적 지식의 ‘기술적’ 사용이 분명 서양에서 매우 우호적이던 경제적 고려에 의하여 촉진된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촉진은 서양의 사회구조가 가진 특이함에서 도출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구조의 ‘어떤’ 부분으로부터 그것이 도출되었는가 하는 질문을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 구조의 모든 부분이 동등한 중요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의심할 바 없이 중요한 것들 중에는 법률과 행정의 합리적 조직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근대의 합리적 자본주의는 단지 기술적 생산 수단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 규칙에 따라 계산 가능한 법적 체계와 행정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없어도 모험적이고 투기적인 무역 자본주의와 모든 종류의 정치적으로 규정된 자본주의는 가능하지만, 결코 고정자본을 갖추고 계산의 확실성을 지닌 개인적 창의에 의한 합리적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법적 체계와 행정은 오직 서양에서만 비교적 잘 이루어진 법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완성도를 가지고 경제활동에 이용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물어야 한다. 여러 다른 환경 중에서도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다시 거꾸로 법과 행정에서 특별히 합리적 법률로 훈련된 법관 계급의 우세를 위한 길을 준비하는 데 일조했다. 물론 이것만이 유일한 것이었다거나 주된 것이었다는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관계 자체가 법률을 만든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법률의 발전에는 여러 가지 상이한 힘들이 작용했다. 그런데 왜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같은 결과를 낳지 못했을까? 왜 그곳에서는 과학적·예술적·정치적·경제적 발전이 서양처럼 독특한 합리화의 길에 들어서지 못했을까?

위의 모든 경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서구 문화의 특수하고 독특한 합리화이다. 이제 다음의 논의가 반복적으로 보여주듯이 이 합리화라는 말은 매우 상이한 것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신비적 명상의 합리화라는 것이 있

다. 즉 삶의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특히나 비합리적인 태도의 합리화가 있다. 마찬가지로 경제생활, 기술, 과학적 탐구, 군사 훈련, 법과 행정 등에 대한 합리화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분야의 각각은 매우 다른 궁극적 가치와 목적에 따라 합리화될 수 있으며, 한 관점에서 합리적인 것이 다른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매우 다양한 성격의 합리화가 삶의 다양한 영역과 문화의 모든 부문에 존재했던 것이다. 문화사의 관점에서 각각의 차이점을 특징짓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합리화되었는가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같은 설명의 시도는 언제나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무엇보다도 경제적 조건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대립되는 상관관계들도 도외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왜냐하면 경제적 합리주의의 발달이 부분적으로는 합리적 기술과 법률에 의존한다 해도, 그와 동시에 그러한 발달은 일정한 유형의 실천적인 합리적 행위를 채택하는 인간들의 능력과 성향에 의해서도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들이 정신적 장애에 의하여 방해를 받으면 합리적인 경제행위의 발전 역시 심각한 내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마술적이고 종교적인 힘들, 그리고 그것에 토대를 둔 윤리적 의무의 관념 등은 과거에 항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형성 요인 중의 하나였다. 여기에 수록한 연구들에서 우리는 이러한 힘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두 편의 오래된 논문을 앞에다 실었는데 이 글들은 중요한 점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포착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의 측면에 접근하려는 시도이다. 즉 일정한 종교적 관념이 경제적 정신이나 경제 체계의 에토스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 경우에 우리는 근대적 경제생활의 정신과 금욕적 프로테스탄티즘의 합리적 윤리 간의 연관성을 다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단지 인과 연쇄의 한 측면만을 다루는 것이다. 세계 종교의 경제 윤리에 관한 그다음의 연구들은 가장 중요한 종교들이 경제적 삶과 그 환경 안에서 사회적 계층화에 대하여 가지는 관계에 관한 조사라는 형식으로 서양과의 비교점을 찾는 것이 필요한 한에서 양면적인 인과관계를 추적해 나간다. 왜냐하면 오직 이런 식으로 해야만, 어느 정도 수용할 만한 근접

성에 도달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른 종교들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하는 서양 종교의 경제 윤리 요소들에 대한 인과적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들은 아무리 간단한 형태로도 결코 문화에 대한 완성된 분석임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 연구들은 각각의 문화에서 그것을 서양 문명과 구별시키는 요소들을 매우 사려 깊게 강조한다. 따라서 이 연구들은 ‘이러한’ 관점에서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을 지향하는 것이다. 우리의 대상을 보건대 어떤 다른 절차도 가능한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목적이 가지는 한계를 특별히 강조해야만 한다.

다른 측면에서 적어도 초보자들은 이러한 연구의 중요성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중국학 전문가, 인도학 전문가, 셈학 전문가, 이집트학 전문가들은 물론 여기서 다루어진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우리는 단지 본질적인 점에서 우리가 결정적 잘못을 범하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비전문가가 할 수 있는 한 이러한 이상에 어느 만큼이나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필자는 알지 못한다. 아주 분명한 것은 번역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기념비, 사료, 다른 자료 문헌 등의 사용과 평가에 의존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때로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고 그 가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는 전문적인 문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필자는 자신의 저작에 대하여 겸손한 주장을 해야만 한다. 사실적 사료의 이용할 수 있는 번역의 수가, 특히 중국처럼 중요한 원전 자료들에 비하여 아직도 적은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모든 이유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아시아를 다루는 부분에서 분명한 잠정적 성격만을 갖는다. 단지 전문가만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현재의 이 연구와 같은 글들이 쓰이는 이유는 단지 아직도 이러한 독특한 관점에서 이러한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진 전문적 연구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글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문적 저작에 대하여 말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에서 결국은 이후의 다른 글들에 자리를 빼앗기게 된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반박될 만한 것이라 해도, 다른 특수한 분야로 넘어드는 것은 비교연구에서 불가피한 일이다. 그

렇지만 그러한 글의 저자는 자신의 성공도에 대해 상당한 회의가 생기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해야만 한다.

오늘날 우리는 유행과 학자들의 빗나간 열망 때문에 전문가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도 좋다거나 관찰자 정도의 수준에 종속되는 상태로 전락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거의 모든 과학은 딜레탕트에게 어느 정도 신세지고 있으며 종종 매우 귀중한 관점을 신세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딜레탕티즘을 지도 원리로 삼는다면 과학의 종말이 될 것이다. 그저 보기를 열망하는 사람은 영화를 보러 가는 편이 낫다. 비록 현재의 연구 분야에서도 그와 같은 것들이 문학적 형식으로 엄청나게 제공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태도만큼 이 글들처럼 철저히 진지한 연구와 거리가 먼 것은 없다. 그리고 덧붙이건대 설교를 원하는 사람은 비밀 종교 집회에 가는 편이 나을 것이다. 여기서 비교된 문화들의 상대적 가치에 대한 문제에 관한 한 하나의 대답이란 없다. 사실상 인간 운명의 길은 그 운명의 일부를 탐사하는 사람을 섬뜩하게 한다. 그렇지만 마치 바다의 풍경이나 위엄 있는 산을 본 사람이 적어도 예술적 또는 예언적 형식으로 그것을 표현할 자질이 없을 때 그렇듯이, 적어도 사소하나마 개인적 주석을 달아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다른 모든 경우에 직관적으로 파악한 사실을 엄청나게 많은 말로 표현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조망이 결여되어 있음을 숨기는 일에 불과하다. 또한 인간에 대한 조망도 결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민족지적 자료가 실상 거의 연구 전체에 걸쳐서, 특히 아시아 종교의 경우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만큼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정당화가 필요하다. 이 같은 제한의 이유는 인간의 작업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이러한 누락이 관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각 나라의 문화담지자인 계급의 종교적 윤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계급의 행위가 미친 영향에 우리는 관심을 가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단지 민족지와 민속에서 얻어진 사실들이 그것과 비교되는 경우에만 상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이 민속지학자들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결함임을 명백하게 인정하며 또 강조해야만 한다. 나는 종교사회학에 대한 체계적 연구에서 이러한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기여를 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시도는 뚜렷하게 제한된 목적을 가진 이러한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 서양 종교와의 비교점을 제시하는 정도로 만족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문제의 ‘인류학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서로 독립적인 삶의 부문들에서조차 일정한 유형의 합리화가 서양에서, 그리고 오직 그곳에서만 발전했음을 거듭 발견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유전상의 차이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필자는 생물학적 유전의 중요성을 매우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류학적 조사의 현저한 성취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지금까지 이 분야가 성취한 발전에서 유전이 미친 영향의 정도 혹은 무엇보다도 영향의 형식을 정확히 아니면 대략이나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 환경 조건에 대한 반응이라는 면에서 만족스럽게 설명될 수 있는 모든 영향과 인과관계를 우선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사회학적이고 역사적인 연구의 과제 중 하나임이 분명하다. 인종에 관한 비교신경학과 비교심리학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앞날이 밝은 현재의 초기 수준을 넘어서는 때에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의 개연성이나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조건은 필자가 보건대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유전에 호소하는 일이 현재 얻을 수 있는 지식의 가능성의 성급한 포기를 포함하며, 그것은 문제를 (현재까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으로 밀어버리는 일에 불과하다.

1부
문 제



1. 종파와 계층¹

여러 종파와 혼합되어 존재하는 지방의 직업 통계를 보면 특히 한 가지 현상이 빈번하게² 나타나는데, 그것은 가톨릭계 신문이나 문헌에서³ 자주, 그리고 독일의 가톨릭 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된 현상이다. 즉 그 현상이 자본 소유자와 경영자층, 상급의 숙련 노동자층, 특히 근대적 기업에 있어 높은 기술적 또는 상인적⁴ 商人的 훈련을 받은 구성원들이 매우 현저한 프로테스탄트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이다.⁴ 동부 독일의 독일인과 폴란드인처럼 종파의 차이가 국적의 차이 및 문화 발달 수준과 일치하는 경우뿐 아니라 개화기의 자본주의 발전이 주민을 그 발전의 필요에 따라 사회적으로 계층화시키고 직업적으로 분화시킨—그리고 분화가 심할수록 더욱 분명하게—거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그 현상이 종파 통계의 수치로 나타남을 본다. 물론 대규모의 근대적 상공업에서 자본 소유⁵와 경영, 고급노동에 종사하는 프로테스탄트의 백분율이 전 인구의 구성 비율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것은⁶ 부분적으로는 먼 과거로 소급되는 역사적 이유에 기인하는 것이며⁷ 따라서 종파상의 소속은 경제적 현상의 ‘원인’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그 현상의 ‘결과’로 여겨진다.

그러한 경제적 기능에 종사한다는 것은 부분적으로 자본 소유나 비용이 많은 드는 교육을 전제하며, 대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전제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러한 종사가 유산 소유나 일정한 부⁸와 결부되어 있다. 자연이나 교통 조건을 통해 번성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부유한 여러 지역, 특히 많은 수의 부유한 도시들은 16세기에 프로테스탄트로 개종했으며 그 결과 프로테스탄트는 오늘날에도 경제적 생존경쟁에서 유리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곧 다음과 같은 역사적 질문이 발생한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

역이 특별히 종교개혁을 받아들일 소지가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은 우선 생각하듯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물론 경제적 전통주의에서 탈피한 것이 종교적 전통에 대한 회의 경향과 전통적 권위 일반에 대한 거부 경향을 본질적으로 밑받침하는 한 계기인 듯이 보인다. 그러나 그 경우 오늘날 종종 망각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즉 종교개혁은 삶 전반에 대한 교회의 지배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까지의 삶의 형식을 다른 형식으로 대체함을 뜻한다. 물론 이는 극도로 순응적이고 실제적으로는 당시에 거의 느껴지지 않았으며 여러 면에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던 지배를, 대대적으로 사생활과 공적 생활에 파고들어 모든 삶의 영위를 매우 부담스럽고 진지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이다. 가톨릭교회의 지배—‘이단을 벌하고 죄인에게는 온화하게’, 이는 현재보다는 그 당시에 더욱 그러했다—는 현재 철저하게 근대적인 경제적 특성을 가진 국민들도 감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15세기 말경에 출현한 부유하고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는 감당하는 것이 더욱 쉬웠다.

16세기 제네바와 스코틀랜드에서 16세기에서 17세기로 넘어가는 시기 네덜란드의 대부분에서, 그리고 17세기 뉴잉글랜드에서, 또 한때는 영국 본토에서 세력을 얻은 칼뱅주의의 지배는 우리가 보기에 개인에 대해 존재할 수 있는 교회의 통제 중 가장 견디기 힘든 형태였던 것 같다. 실제로 제네바,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 당시의 구 도시귀족의 광범한 계층 역시 칼뱅주의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느꼈다. 경제적으로 발전된 지역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가들이 비난한 것은 삶에 대한 교회적·종교적 지배가 과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바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나라들,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러한 나라 안에서 경제적으로 상승하던 ‘부르주아적’ 중산계급이 전대미문의 그러한 청교도적 전제專制를 받아들인 데 그치지 않고 칼라일이 정당하게 ‘우리 최후의 영웅주의’라 부른 전무후무한 영웅주의를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변화 및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어찌된 것일까?

더욱이 종종 주장되듯이 자본 소유와 근대 경제의 지도적 위치에 프로테스탄트가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평균적으로 양호한 재산을 역사적으로 물려받은 결과라고 이해될 수 있다 해도, 그러한 인과관계가 분명히 성립하지 않는 현상들도 있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면, 바덴과 바이에른, 헝가리 등에서는 가톨릭계의 부모들이 프로테스탄트계 부모들과 달리 자신들의 자식에게 시키는 중등교육의 종류에서 매우 일반적으로 지적될 수 있는 현상이 있다. ‘중등’ 교육기관의 학생들 중 가톨릭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인구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매우 뒤쳐진다는 점⁸은 물론 상당 부분 위에서 언급된 유산의 차이에 기인한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시험에 응시하는 가톨릭 학생 중에서도 기술적 연구와 상공업을 위해 준비하는 근대적 기관, 즉 실업고등학교, 실업중학교, 고등국민학교 등과 같이 부르주아적 영리 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의 출신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역시 프로테스탄트에 훨씬 못 미치는 반면에⁹ 인문계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예비 교육에서는 가톨릭이 우세하다—이는 앞서 말한 이유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며, 오히려 왜 자본주의적 영리 활동에 가톨릭이 적게 참여하는지를 설명하는 하나의 이유로 여겨져야 한다.

근대적 대기업에서 가톨릭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를 이해시켜줄 또 하나의 현저한 사실이 있다. 공장이 자신의 숙련 노동력을 수공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로부터 상당 부분 취하고, 따라서 공장에 필요한 노동력의 연마를 수공업에 위임하며, 숙련이 끝나면 노동력을 취해 간다는 숙지된 현상은 본질적으로 가톨릭의 수공업 노동자보다는 프로테스탄트의 경우에 뚜렷이 나타난다. 달리 말해 수공업의 도제 중 가톨릭은 수공업에 잔존하려는 경향이 더 크며, 따라서 수공업의 장인^{匠人}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반면에 프로테스탄트는 상대적으로 공장으로 흘러 들어가 그곳에서 숙련노동자층과 경영관리층의 상층부를 충원하는 경향이 짙다.¹⁰ 이 경우 분명히 습득된 정신적 특성, 그리고 특히 고향과 집의 종교적 분위기를 통해 규정된 교육 방향이 직업 선택과 그 이후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인과관계가 있다.

독일에서 근대적 영리 생활에 가톨릭이 저조한 참여를 한다는 것은 예부터¹¹ 그리고 현재에도 익숙해 있는 다음의 경험적 사실과 상치되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끌게 된다. 즉 ‘지배집단’인 다른 집단에 대해 ‘피지배자’로서 대립하는 민족적 혹은 종교적 소수는 자의건 타의건 간에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로 영리 활동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소수 중 재능이 뛰어난 자들은 관직에서 실현시킬 수 없는 공명심을 영리 활동에서 만족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갈리시아 지방에서와는 달리 분명한 경제적 진보를 이룬 러시아와 동부 프러시아의 폴란드인들, 더 일찍이는 프랑스 루이 14세 치하의 위그노 교도들, 영국의 비국교도들과 웨이커 교도들, 그리고 2천 년 동안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독일의 가톨릭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전혀 볼 수 없거나, 아니면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들이 박해를 받거나 관용을 받던 시기의 네덜란드나 영국에서의 프로테스탄트와는 달리 두드러진 경제 발전도 전혀 이룩하지 못했다. 오히려 실제로는 프로테스탄트가 (특히 나중에 특별히 다루게 될 그들 중의 몇몇 분파가) 지배층으로서든 피지배층으로서든, 다수로서든 소수로서든 경제적 합리주의를 향한 특수한 경향을 보였고, 가톨릭은 어느 경우든 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한 경향을 보이지 못했고 현재도 그러하다.¹² 따라서 행동상의 차이가 생긴 원인은 대체적으로 종파가 그때그때 처한 외적인 역사적·정치적 상황에서가 아니라 지속되어 온 내적 특성에서 찾아야만 한다.¹³

따라서 우선 앞서 서술한 방향으로 작용했고 또 작용하고 있는 종파적 특성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탐구해야 한다. 피상적 관찰과 몇 가지 근대적 인상에 입각해서 그러한 대립을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도 있다. 즉 가톨릭의 강한 ‘비세속성’, 가톨릭의 최고 이상인 금욕적 성격이 신자들로 하여금 현세의 재물에 대해 더 강한 무관심을 보이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 설명은 오늘날 두 종파가 상대방을 평가하는 데 대중적으로 사용

하는 도식과 일치한다. 프로테스탄트 측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가톨릭적인 삶의 영위가 갖는(실제로건 말뿐이건) 금욕적 이상에 대한 비판에 이용하며, 가톨릭 측은 프로테스탄티즘에 의한 모든 삶의 내용의 세속화 결과로 주장되는 ‘물질주의’에 대한 비난으로 답한다.

최근의 한 저술가 역시 영리 활동에 대한 두 종파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대립이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가톨릭은…… 평온하며 영리 충동이 더 적기 때문에, 위험하고 자극적이지만 중국에는 명예와 부를 가져다주는 삶보다는 아무리 적은 수입이라도 가능한 한 안정된 삶의 진로를 택한다. 익살맞은 속담 가운데 ‘잘 먹든지 아니면 편히 자든지’라는 말이 있다. 이 경우 프로테스탄트는 매우 잘 먹기를 바라며 가톨릭은 편히 자기를 바란다.’¹⁴ 실제로 ‘잘 먹기를 바란다’는 표현은 현재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중 종교에 냉담한 부류의 동기를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상황이 달랐다. 즉 영국, 네덜란드, 미국의 청교도들에게는 주지하다시피 ‘현세적 쾌락’과는 정반대되는 것이 특징적이었으며, 나중에 다시 보게 되겠지만 이는 우리가 매우 중요시해야 할 그들의 특징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뿐 아니라 예를 들어 프랑스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종교전쟁 시기에 칼뱅파 교회, 특히 그들의 ‘십자가 아래로’에서 여실히 드러냈던 특성을 매우 오랫동안,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아니 아마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프랑스 프로테스탄티즘은 잘 알려져 있듯이 프랑스의 산업 및 자본주의 발전의 가장 중요한 담당자들 중 하나였고 박해를 견뎌낸 일부는 아직도 그러하다.

이러한 엄숙함과 생활을 강력히 지배하는 종교적 관심을 ‘비세속성’이라 부른다면, 프랑스의 칼뱅주의자들은 적어도 지구상의 어느 민족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톨릭교에 열렬한 북부 독일의 가톨릭만큼 비세속적이었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리고 이들 두 종파 모두 지배적인 종교 분파들과는 구별되었다. 즉 프랑스의 경우는 하층은 극히 삶을 즐기고 상층

은 종교에 단적으로 적대적이던 가톨릭과 구별되며, 독일은 상층이 현재 세속적 영리 활동에 몰두하고 있고 종교에 대해 현저한 무관심을 보이는 프로테스탄트와 구별된다.¹⁵ 이러한 평행 관계가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소위) 가톨릭의 ‘비세속성’이나 프로테스탄티즘의 유물론적 ‘세속성’ 따위처럼 모호한 표상으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아무런 출발점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표상은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 조금도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상을 계속 사용하려 한다면 앞서 말한 것 이외의 다른 많은 관찰 사실에 곧바로 부딪히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비세속성, 금욕, 종교적 경건성 등과 자본주의적 영리 활동에 대한 참여 간의 대립이 오히려 상호간의 내적 친근성으로 전도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몇 가지 매우 외적인 측면에서 시작한다면 실제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내면적인 형태의 대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상인권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이 두드러진다. 특히 경건파 중 가장 진지한 신자들의 대다수가 이 상인권 출신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실이 상인 직업에 맞지 않는 내면적 본성에 ‘배금주의’가 역작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며, 분명히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Franz von Assisi의 경우처럼 여러 경건주의자들이 스스로 ‘개종’의 과정을 그렇게 설명해왔다. 마찬가지로 세실 로즈에까지 이르는 대단한 자본주의 기업가들이 목사 집안 출신이라는 독특한 현상도 청소년기의 금욕적 교육에 대한 일종의 반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은 뛰어난 자본주의적 영리 감각이, 전체 삶을 관통하면서 지배하는 가장 강렬한 형태의 경건성과 함께 한 사람 내부에, 그리고 한 집단 내부에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드문 것이 아니고 역사상 중요한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분파의 모든 집단에 특징적인 것이다. 특히 칼뱅주의는 등장하는 모든 곳에서¹⁶ 이러한 결합을 나타낸다. 종교개혁이 전파되던 시기에 칼뱅주의는 (다른 프로테스탄트 종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나라에서 특정한 개별적 계급과 결부되는 일이 거의

없었던 만큼 프랑스 위그노 교회의 개종자들 가운데 수도승과 산업가(상인, 수공업자) 등이 수적으로 많았으며 박해의 시기에도 여전히 그러했다는 것은 특징적 사실인 동시에 어떤 의미에서는 ‘전형적’ 사실이다.¹⁷

이미 스페인 사람들은 ‘이단’(즉 네덜란드의 칼뱅주의)이 ‘상업적 정신을 고취시켰음’을 알고 있었고, 이는 W. 페티 경이 네덜란드의 자본주의적 비약의 이유에 대해 논의하면서 제시했던 견해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고트하인Gothein¹⁸은 칼뱅주의자들의 산재된 거주 지역이 ‘자본주의 경제의 묘판’이었음을 정당하게 지적했다.¹⁹ 이 경우 그런 이주자들이 대개 유래한 곳인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경제적 문화가 우월했다는 점을 결정적 이유로 간주할 수도 있고, 또는 망명이나 전통적 생활관계로부터의 분리에서 오는 심각한 영향을 그 이유로 댈 수도 있다.²⁰ 그러나 콜베르Colbert의 투쟁에서 알 수 있듯이 17세기에 프랑스 본토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다른 나라는 접어두고라도 오스트리아조차도 때에 따라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제조업자들을 직접 받아들였다. 물론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가 이 방향으로 동일하게 작용한 것은 아닌 듯 보인다.

독일에서도 칼뱅주의는 이러한 작용을 분명하게 행했다. ‘개혁’ 종파²¹는 부퍼탈과 다른 지방에서 다른 신자들에 비해 자본주의 정신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루터교보다 많은 이바지를 했음은 특히 부퍼탈 지방에서 전반적 혹은 개별적 비교가 가르쳐 주는 바이다.²² 스코틀랜드에 대해서는 버클Buckle, 그리고 영국 시인 가운데 특히 키츠Keats가 이 관계를 강조했다.²³ 익히 알려져 있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비세속성’뿐 아니라 그들의 부와 더불어 평판이 높았던 종파들, 특히 웨이커와 메노파들의 거의 전부에 있어 종교적 생활 규제가 영리 감각의 강력한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웨이커 교도가 영국과 북미에서 행한 역할은 메노파 교도가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한 역할과 같다. 동프로시아에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1세조차도 병역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메노파 교도들을 산업에 불가결한 담당자라 여겨 보호한 사실은 그 점을 나타내주는 잘 알려진

사실들 중 하나일 뿐이다. 이 왕의 성격을 감안하건대 매우 유력한 증거의 하나다.

마지막으로 경건파 신도들도 강렬한 신앙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발달된 영리 감각과 성공을 결합시켰다는 것은²⁴ 주지의 사실이다—이 점은 라인의 상황과 칼브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예비적인 논의인 이 글에서는 더 이상의 사례를 제시하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한 몇 가지만으로도 다음과 같은 사실이 충분히 지적되기 때문이다. 즉 ‘노동의 정신’ 또는 ‘진보의 정신’, 아니면 그 무엇이라 부르든 간에 프로테스탄티즘이 환기시켰다고 하는 그 정신은 ‘세속성’이나 ‘계몽주의적’ 의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루터, 칼뱅, 녹스Knox, 뵈트Voët 등의 초기 프로테스탄티즘은 오늘날 ‘진보’라 부르는 것과는 전혀 무관했다. 오늘날 가장 극단적인 종교가들도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인정하는 근대적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해 초기의 프로테스탄티즘은 정면으로 적대적이었다. 따라서 초기 프로테스탄트 정신의 일정한 특징과 근대의 자본주의적 문화 사이에 어떤 내적인 친화성이라는 것을 찾으려 한다면, 우리는 좋건 나쁘건 간에 그러한 친화성을 (소위) 그것의 다소간 유물론적인 혹은 반금욕적인 ‘세속성’에서가 아니라 그것의 순수한 종교적 성격에서 찾아야만 한다—몽테스키외Montesquieu는 영국인들이 ‘세 가지 사항에서 다른 모든 민족을 능가하는데 그것은 신앙, 상업, 자유’라고 말한 바 있다(《법의 정신》XX권 7장). 영국인들이 상업 활동에서 우월하다는 것이—그리고 다른 맥락이기는 하지만 영국이 자유로운 정치제도에 적응했다는 것이—몽테스키외가 인정한 바 있는 저 경건함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막연히 느껴지던 가능한 모든 관계가 즉시 부각된다.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여기서 불분명하게 떠오르는 것을 모든 역사적 현상에 개재되기 마련인 무한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명료하게 정식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

리가 다뤄온 모호한 일반적 표상의 영역을 떠나서 기독교의 여러 형태에서 역사적으로 주어진 위대한 종교사상의 특성과 차이를 세밀하게 탐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에 앞서 몇 가지 언급이 필요하다. 우선은 그것의 역사적 설명이 문제가 되는 대상의 독특성에 관한 것이며, 다음은 그러한 설명이 도대체 이러한 탐구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인가 하는 것이다.

윤진이 박성수

고려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려대와 강원대 강사를 역임하였다.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역서로는 아담 샤프 《마르크스나 사르트르냐》, 마르쿠제·포퍼 《혁명이나 개혁이냐》, 위르겐 하버마스 《사회과학의 논리》, 앨런 스윈지우드 《사회사상사》, 콘스탄티노프 외 《소비에트 철학》 등이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지은이 막스 베버

옮긴이 박성수

펴낸이 전병석

펴낸곳 (주)문예출판사

신고일 2004. 2. 12. 제 312-2004-000005호(1966. 12. 2. 제 1-134호)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84-4

대표전화 393-5681 팩시밀리_393-5685

E-mail_info@moonye.com

제1판 01쇄 펴낸날_1988년 5월 20일

제2판 19쇄 펴낸날_2013년 1월 10일

ISBN 89-310-0044-8 93300

전자책 제작 빌드북

이 전자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민사상의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회의의 KoPub서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업으로서의 학문·직업으로서의 정치

— 막스 베버 | 이상훈 옮김

학문과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자와 정치가의 사명은 무엇인가, 또 학문과 정치, 정치와 윤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책에 실린 두 강연 〈직업으로서의 학문〉과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막스 베버의 인생 말년에 행해진 것으로 그의 원숙한 사상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베버의 사상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문헌이자, 사회학 분야의 고전으로 높이 평가받아왔다. 더욱이 이 두 강연에는 그때까지 취해온 베버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재진술 그 이상의 것이 들어 있어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주목받는 베버 연구가 볼프강 슐루흐트가 두 강연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논문을 부록으로 실었다.

베버와 마르크스

— 칼 레비트 | 이상훈 옮김

우리의 현실 사회와 마찬가지로 이 사회에 대한 과학도 부르주아 사회학과 프롤레타리아적 마르크스주의로 나뉜다. 이 두 영역을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하며 대표적 사상가는 베버와 마르크스다. 놀랍게도 이들의 연구 영역은 근대의 경제 및 사회의 자본주의적 체제로 동일하다. 부르주아 사회학과 마르크스주의의 연구 대상이 공통적이라는 것은 최근의 사회학 연구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문제의 중심은 베버와 마르크스의 근본적인 연구 동기를 비교, 분석하여 경제 및 사회의 기초인 인간에 관한 그들 이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와 접목시켜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 규명

근대 유럽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생을 프로테스탄티즘, 특히 칼뱅주의 교리하에서 금욕과 근로에 힘쓰는 종교적 생활태도와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은 근대 사회과학에서 가장 유명하고도 논쟁적인 저작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특히 베버의 역사 해석의 문제, 사회학적 인과관계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매우 흥미로운 저작이다. 베버는 해박한 지식과 투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근대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 과정을 그의 사회과학 방법론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설명한다. 베버의 논지는 다원주의적 설명에 있다. 사회를 여러 원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베버는 이 저작 자체도 관념적 동기가 자본주의라는 생산양식을 만들어 냈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지 근대 자본주의라는 독특한 역사적 단계가 설립되는 데에는 관념적·종교적 동기가 주요한 상호적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는 소극적 주장에 한정된다고 말한다.

베버의 사상은 흔히 마르크스주의와 비교되는데 오늘날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이 도식적 결정론을 벗어나 총체적 역사인식론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따라 이 책은 그 가치를 더하고 있다.

